

공식행사
전체회의

발 제 문

오드리 가리노
[마르세유 부시장]

주최기관과 광주시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또한 마르세유의 빈곤 해결을 위한 흔들리지 않는 의지에 대해 발표할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리의 최우선과제는 마르세유를 인권을 존중하는 현대의 도시, 복지를 개발의 핵심 요소로 고려하는 도시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의 목표는 모든 주민 간 진정한 평등을 촉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개선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키우는 것이다. 이는 현재 우리 도시에서 시급한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들이다.

마르세유는 프랑스 제 2 대 도시로 불평등으로 인한 병폐가 매우 심각하며 오랫동안 빈곤이 심화되었다. 현재 직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통계 정보를 살펴봐야 한다.

마르세유에는 약 백만 명의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들 중 4분의 1 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이는 프랑스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프랑스가 퇴치했다고 믿었던 슬럼가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7,000 명 이상이 슬럼가에 살고 있으며, 연간 최소 15,000 명의 노숙인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암울한 상황은 앞서 언급된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치솟는 주택가격, 인플레이션 및 에너지 가격 상승과 같은 위기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로 수백만 명 이상이 이미 취약한 상황에서, 극빈곤 또는 결핍이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우리가 정면으로 마주해 해결해야 하는 현실이기도 하다.

지방정부 및 도시는 이주민 수용 및 인권보호 문제를 다루며 사회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식량, 식수, 보건, 교육 및 주거에 대한 접근성과 같은 기본적인 인권이 저해받을 때, 인권의 모든 측면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난 3 년간 포괄적인 행동 계획에 착수하여 우리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불평등과 극심한 빈곤 완화를 위해 맞서고 있다.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는 없지만, 세부 계획 및 이러한 계획이 대상으로 하는 인구에 중점을 두고 전반적인 개요에 관해서 설명해 보겠다.

전반적인 프레임워크는 특히 아동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청년층부터 시작하여 모두를 위한 동등한 권리를 중심 의제로 다룬다. 그 결과 아동 청년층을 위한 교육, 학문적 성취, 그리고 이들의 발전에 대한 헌신적인 약속을 수반한다.

- 지위, 사는 곳, 부모의 재정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할 것
- 식량 불안정에 대한 해결책으로, 아동, 특히, 취약계층 가정 아동에 대한 무상 급식 제공
- 아동과 아동을 동반한 성인의 문화 및 스포츠 시설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성 제공

이와 동시에, 인권 보장에 있어 높은 빈곤율과 도전과제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노년층으로까지 우리의 관심 분야를 확대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담 사회 지원팀을 조직했다.

인권 및 평등 증진을 위해 프랑스에서는 약 2 백만 유로의 추가 예산을 가지고 특별한 빈곤 계획을 시행했다. 이는 행동을 취하기 위한 역량 강화를 책임지고 있는 협회 및 공공 당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회정책에 대한 2 천 5 백만 유로의 전체 예산에 더해 추가로 집행된 것이었다.

이 계획은 필요에 따라 매년 검토 및 조정되며 가장 취약한 개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구축과 기본적인 욕구 충족에 중점을 두며 특히 식량 및 식수 접근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현재 프랑스, 특히 마르세유에서는 한때 먼 옛날의 이야기로만 기억되던 굶주림이라는 현실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굶주림은 경제적 제약으로 인해 일상적인 식량 부족 문제를 겪는 현상으로 마르세유 시민 3 명 중 1 명이 굶주림을 겪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시 정부는 시민 수 십만 명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례적인 행동 계획을 시작했다.

- 홀리스에 대해 매일 무료 식량 제공
- 식량 제공에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
- 학생에 무료 식사 제공
- 백만 유로 정도의 전담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해 미혼모 가정 등 가장 취약한 계층에 식량 바우처 제공

식량에 대한 접근권만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식수와 위생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3년 전 최초의 공공 샤워 시설을 세울 수 있었다. 이는 특히 도시 거주민 중 샤워시설이나 화장실에 대한 접근권이 부족한 수천 명의 사람에게,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큰 도움이 되었다.

이러한 정책 실행에는 비용이 따르며 정치적인 도전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정책은 프랑스가 실행하고 있는 효과적인 사회안전망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특정 지역에서 극심한 빈곤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 능력이 상당히 약화되었다.

이는 공공서비스가 감소하는 현상에서 여실히 확인될 수 있다. 장 조레스(Jean Jaurès)가 표현했듯, 공공서비스는 이에 대한 접근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공유 재산으로 간주된다. 그렇기에 시정부가 시행하는 샤워 시설 확대와 같은 정책들은 시정부의 무조건적인 무료 공공서비스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즉,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그들의 재정적 상황이나 행정적 지위와 관계없이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에 대한 환영과 이들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마르세유는 지중해를 향해 열린 항구 도시로 우리의 역사는 빈곤이나 갈등을 피해 들어오는 이주민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더 나은 삶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도시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들의 사회적 통합을 촉진시켜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 또한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주민들은 빈곤 심화 및 권리 결핍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겪고 있는 사람들이다.

마르세유에 사는 사람은 누구라도 시민으로 간주되며, 우리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의 대상은 바로 시민이다. 이에 따라 권리 및 수용에 대한 접근성 증진에 특히 중점을 두고 적극적인 수용정책을 펼쳐왔다.

빈곤정책을 통해 지난 3년간 지자체 내에 300곳 이상의 수용 공간을 만들어 홈리스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중 많은 부분이 여성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할애되고 있다. 또한, 불법 점거지에 살고 있는 거주민을 위한 전담 수용 시설을 설립함으로써 불법 점거지와 슬럼을 퇴치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마르세유의 최대 규모이자 가장 오래된 슬럼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초의 통합 마을이 운영되었다. 이 마을은 80명의 주민들을 수용하고 사회적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여정은 해결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한 도전적인 과제이지만, 마르세유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오랫동안 사회적 병폐로 여겨졌던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주택에 대한 접근성은 기본적 권리로써, 모든 시민들이 소득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누릴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진전을 보기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국 권리에 대한 접근성이 통합 및 포용을 위한 근간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 수천 명의 취약계층과 관련한 문제들은 매우 복잡하다. 언급된 공공정책을 바탕으로 우리는 가장 취약한 계층이 효과적이며 장기적인 사회적 지원으로부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